전남대 박물관 푸짐한 문화 상차림

김훈·성석제·장정일 등 최고 스타 작가 강좌

수요일엔 영화상영·음악회…디자인 전시회도

대학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 상차림을 마련하고 지역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박물관 문화강좌'를 열었던 전남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영효)은 올해는 국내 최고의 작가들을 초청 '삶을 읽고 쓰다-작가와의 만남'(3월 17일~6월 16일) 행사를 진행한다. 김훈·성석제·장정일 등 현재 한국 문단을 이끌고 있는 스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은 또 작은음악회와 영화감상, 전시회 등 푸짐한 문화행사도 준비했다.

강의가 열리는 매주 수요일 박물관을 방문하면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영화감상, 전시회 관람 등이 모두 가능하다.

▲한국 최고의 문인을 만나다.

매주 수요일(오후 2시~4시) 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쏟아낸 작가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17일 첫번째 손님은 '공무도하가',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소설가 김훈이다. 이어 '안녕, 엘레나'의 김인숙,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성석제가 강연한다. 또 '구월의 이틀' 등 논쟁적인 글을 써온 장정일, '정염의 작가' 전경린, '유년의 뜰'의 오정희 등도 광주 문학팬들과 귀한 시간을 갖는다.

명징한 언어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인들도 광주를 찾는다.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시인을 비롯해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의 정호승, 황지우씨 등이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밖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방송 작가 주찬옥과 '101번째 프로포즈' 등을 집필한 시나리오 작가 노효정씨도 참여한다.

▲영화상영·음악회·전시회

매주 수요일(오후 4시~6시) 박물관 시청각실에서는 영화상영회가 진행된다. 17일 파블로 네루다와 우체부 시인의 이야기를 그린 '일 포스티노'를 시작으로 헨리 뮐러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북회귀선', 랭보를 주인공으로 한 '토탈 이클립스' 등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17일(오후 1시 10분~50분)부터 격주 수요일에는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 첫날인 17일에는 현악 4중주단이 '그대를 사랑해' 등을 들려주며 금관5주중단, 남성 4중창단, 피아노 트리오 등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다.

박물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디자인 전시회에도 열린다. 'Image plus'라는 주제의 이번 이번 전시회는 남호정(전남대 교수), 주치수(광주대 교수), 오승진(광주여대 교수)씨 등 광주 지역 디자인 전공 교수들을 초청해 마련한 전시회다. 현장에서 디자인 작품도 판매한다.

수강료 일반 8만원, 학생·경로 6만원. 문의 062-530-35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강좌 일정

〈장소:박물관 4층 시청각실〉

날짜	일정
3. 17(수)	김훈(소설가)
3. 24(수)	김인숙(소설가)
3. 31(수)	성석제(소설가)
4. 7(수)	도종환(시인)
4. 14(수)	주찬옥(방송작가)
4. 21(수)	김용택(시인)
4. 28(수)	노효정(시나리오 작가)
5. 12(수)	장정일(소설가)
5. 19(수)	최영미(시인)
5. 26(수)	정호승(시인)
6. 2(수)	전경린(소설가)
6. 9(수)	황지우(시인)
6. 16(수)	오정희(소설가)

김훈

성석제

도종환

장정일

최영미

정호승

주치수 작 '환몽 1'

전경린

박진현의 문화카페

거꾸로 가는 광주천 경관

인구 40여 만명의 경남 김해시는 요즘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도시디자인과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발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인구 360만 명의 부산시도 포함됐다. 영남권의 제1도시가 중소도시에 한 수 배우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부산시가 '자존심을 죽이면서까지' 김해를 방문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근래 김해시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국내외 각종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김해시의 공공조형물이 줄줄이 입상하는 쾌거를 얻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분야는 전국 지자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사례다.

김해시는 10년 전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관련분야 박사급 2명을 채용해 본격적인 도시경관 디자인에 나섰다. 공공디자인에 눈 돌린 지 5년 만에 김해시는 한 차원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 서부산에서 동김해로 진입하는 관문이었던 김해교를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살았던 금관가야의 역사를 상징하는 왕관모양의 조형물로 형상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해반천의 교량 3개(연지교, 경원교, 봉황교)를 LED조명으로 채색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김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해반천은 가족들의 산책코스로, 연지교·봉황교·경원교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이들 공간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예술과 커뮤니티의 조화 때문이다. 도시의 공공시설물을 가야문화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각으로 접목시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 삭막한 김해교와 해반천을 도시의 아이콘으로 가꾼 공로로 김해시는 지난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신감을 얻은 김해시는 오는 5월까지 디자인 창조도시를 위한 콘텐츠를 확정하고 연내에 유네스코 디자인 분야 창조도시에 등록할 예정이다.

김해시의 성과를 접하니 문득 광주에서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딜까 궁금해진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시민들은 선뜻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비엔날레와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열리는 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거리는 몰개성적이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07년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천 교량경관개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려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디자인 개념이 단계별로 상이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량의 경우 지나치게 큰 조형물이 설치돼 주변경관을 깨트리고 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원지교 인근의 20여 m 철골구조물은 공공디자인 실종의 결정판이다. 3억원이 투입됐으나 심미성은커녕 상징성과 기능성 어느 것 하나 찾을 수 없다. 공공조형물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도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광주에는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등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해 흉물로 전락한 조형물이 더러 있다. 원지교 철 조형물이 '제2의 루미나리에' 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테너 임웅균과 함께하는 영화음악회

현대캐피탈 10일 문예회관

현대·기아차 가족들 초청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이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테너 임웅균과 함께하는 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대·기아차 카마스터와 가족 1천800여명이 초청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테너 임웅균씨와 소프라노 김수연씨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박상현)와 협연으로 친숙한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007', '냉정과 열정사이', '스타워즈' 등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카마스터와 가족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용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행사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엄마학교 수강생 모집

아이숲어린이도서관

아이숲어린이도서관(관장 정봉남)은 '2010년 도서관 엄마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일부터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오혜자 상임이사와 동화 '나는 진짜 나일까'의 저자 최유정씨 등이 강연한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강좌당 1만 원이다.

한편,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이번 달부터 광주시 남구 백운동 월화수공부방에서 공부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652-12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 빛고을 수놓는다

디지페스타 주제 '광속구' 확정·국내외 작가 30여명 참여

백남준 미공개 작품까지 대거 소개…관람객 체험 행사도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감성이 미디어를 만나 꽃을 피운다. 광주에서 백남준 등 국내외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중소기업 (주)디스텍은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는 '디지페스타(DIGIFESTA)'(4월10일~6월10일)에 참여할 작가와 주제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 특별전' '주제전' '청년 작가 공모전' '체험전' 등으로 펼쳐진다.

특히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이 광주에서 대거 소개돼 더욱 관심을 끈다. '백남준 특별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롯해 그동안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첫 선을 보인다.

또 주제전에는 구자영, 김승영, 손봉채, 심철웅, 이이남, 이정록, 진시영, 하봉호씨 등 국내외 작가 30여명이 참여해 '광속구'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신흥 미디어 작가 발굴 프로젝트인 '청년 작가 공모전'에는 권승찬, 김현주, 박승원, 장보윤, 이준씨 등 20여명이 참여해 축제의 장을 펼친다.

이 밖에 '체험전'은 관람객이 참여 작가의 작품을 따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미디어 아트 체험하기 등이 곁들여진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디어 아트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디지페스타 심포지엄'도 열린다.

오는 4월9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광주은행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의 큐레이터 루이즈 샤론,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선정 교수 등이 참여해 미디어아트의 가능성과 전망을 논의한다.

문의 070-7721-57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